

# '94 양돈업계를 돌아보며



최 상 백 회장  
(양돈산학협동연구회)

어느덧 갑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지난 여름 기상관측 이래 연일 최고기록을 갱신하는 무더위와 30여년만의 가장 심했던 가뭄으로 예년에 걱정도 없었던 식수마저 부족하여 더욱 어려움이 많았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생활속에서도 묵묵히 돈사를 지키고 있음은 진정으로 가축을 사랑하는 애축정신과 국민보건을 걱정하는 애국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지난 해 UR협상이 타결되자 그렇게 실망하고 허탈해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축사를 손질하고 자동화 시설에 정력을 쏟으며 분뇨처리시설에도 계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은 개방시대의 국제 경쟁에서도 우리 양돈산업을 지켜 보겠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관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 오던 축산업 자조금법이 아직까지도 입법되지 못하였고 문민정부의 대선공약 사항인 동물약품 및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실현될 기미조차 엿보이지 않은채 또 한 해를 보내게 되어 무거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WTO체제하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영세한 양돈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하여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정책자금 확대지원이었음에도 어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자금이 매년 수백억원씩이나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을 거듭하며 은행에서 낯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자금중에는 지원조건(담보능력 등)이 까다롭거나 대상자 선정의 잘못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축산 시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주민들의 이기주의적 반대가 복합되어 집단 민원이란 명분으로 소수 축산인만 희생된 채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게 된 사례가 더욱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양돈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일본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금년에도 수만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형편에 내국적인 문제로 축사시설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우리 양돈인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

66

벌써부터 돼지관리를  
 게을리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분뇨처리  
 문제 등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량한  
 이웃에게도 연대피해를 주고 있는가 하면  
 축산시설 모두를 혐오시설로 인식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99

니다. 97년부터 돼지고기 수입이 개방된다고 하여 미리 패배감을 갖고 양돈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벌써부터 돼지관리를 게을리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분뇨처리 문제 등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량한 이웃에게도 연대피해를 주고 있는가 하면 축산시설 모두를 혐오시설로 인식하게 하는 원  
 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축산시설 반대 집단 민원에 대해 당국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최근 축산분뇨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완벽에 가까운 시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시설에  
 의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하지 않고 집단행동만 두둔하고 소수의 양축농가 의견을 도외시  
 하여 희생시키려는 대표적인 복지부동 행정을 스스로 없이 자행하고 있지 않는지 국제사회가 이  
 웃이 되어 함께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민원처리를 계속 답습해서는 경  
 쟁력을 키울 수 없으며 이제 행정서비스도 적극성을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나 축산을 하는 양축가, 꽃을 재배하는 농민도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  
 수시로 해외연수를 다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일선 행정기관 단체들의 실무자들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양축농가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 감각을 익히고 국내 우수시설을 발굴 현장교육을 통하여 급변하고 있는 국  
 제화 시대에 맞는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 주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모든  
 축산인의 숙원이 되고 있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축산업 자조금법이 입법 시행되어 돼지고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품의 다양화, 품질의 고급화, 유통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더욱 활기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